

다산포럼

일 한번 냅시다



김정남 언론인

“나는 북쪽에서보다는 남쪽에서 먼저 민중의 승리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국민의 새롭고 자발적이며 집단적인 열정의 폭발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 찾아오는 아테네의 봄입니다. 이 아테네 봄날의 압력에 따라 분단된 북쪽에서도 서서히 자기 나름의 평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도의 북쪽에 찾아오는 프라하의 봄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봄이 반드시 반도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날 역사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서서히 두 개의 봄을 하나의 봄으로 결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 반도 전체의 봄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해빙 추세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도 전체에 휘황찬란한 대지의 봄을 이룰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지뢰 대신 꽃과 사슴과 노루와 다람쥐와 더불어 밤새도록 천교와 통일이 도론됩니다.”

한반도에도 봄은 오는가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의 공동 입장조 단원팀 구성, 그리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 때만 해도 나는 과연 한반도에 그런 봄이 올 수 있을까 긴가민가했다. 그러나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우리 측 특사단에게 남북·북미 정상회담 외에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략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예전 수준의 한미 군사 훈련을 양해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한반도에 봄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한 가닥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어서 미·일·중·러에 특사를 파견하는 날 빠른 행보와 관련국들의 반응, 특히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북선의 눈초리를 보내던 일본이

남북 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국면에 변화를 가져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한반도에서 필경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마침내 한국이 무슨 일을 내렸구나 하는 기분 좋은 예감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한번 크게 내 보자고 선포하고 싶은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인민들이 남측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돌아오는 가을에 ‘가을이 왔다’는 주제로 또 한 번 공연을 갖자고 제의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봄이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가을로까지 이어지는 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4월 27일이 오기까지는

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내로남불’ 인사와 어설픈 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통제하기 어려운 북·미 두 지도자를 협상장으로 끌어내어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평화가 걸려 있는 21세기 최대의 판을 옹케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엔, 국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리에게

가슴 설레는 한편이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벅찬 발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럽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로 세계사적이다.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단기필마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구어 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놓치지 않았고, 기다릴 때와 나아갈 때를 헤아려 신이 역사 속을 지나는 순간 뛰어 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 마침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인화(人和)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뿐이다.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뒤를 잇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봄을 규정할 것이다. 이때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선제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남북 간의 잦은 발걸음이 논의되고 세계와 인류를 향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 선언’이 남북 지도자 공동의 이름으로 나와서, 세계를 감동케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찬란한 슬픔의 봄을!

청춘 특·특

세월호 참사와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강소혜 광주대 문예창작과 3학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큰 질문을 던졌지만 참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해답이나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에 2016년 개봉했던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떠올렸다. 이 영화는 마치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인들을 위해 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는 좋은 리더십이런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격양된 감정이 아니라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2009년 1월 15일, 기장과 승무원들을 포함해 총 155명이 타고 있던 US항공 여객기가 새마을호 충돌한다. 이 사고로 엔진이 손상되어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지만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기장의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된 시간은 단 24분. 당연한 기적 설리는 영웅이 된다. 하지만,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는 이 기적과 같은 행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항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는데 기장 설리의 무모한 모험심, 혹은 경박한 영웅심 때문에 강물 위에 불시착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인근 공항으로 회항이 가능했다”, “왼쪽 엔진도 가동 중이었다”며 설리의 선택이 실수일 수도 있었다고 압박을 가한다. 청문회에서 설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이때부터 영웅으로 추대받던 한 개인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다. 당사자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의 비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고뇌를 보여주며 ‘영웅’과 ‘죄인’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그려내며 긴장감을 이끌어낸다.

영화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기장 설리가 비상 착륙한 비행기에 마지막으로 남가 두 번이나 기내를 둘러보면서 남은 승객의 유무를 확인하고, 구조된 이후 항공사 관계자에게 탑승객 155명의 안전을 끝까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다. 기장이 탑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칫 기장 설리의 1인 영웅 무용담이 될 수 있는 스토리이지만, 영화는 이 모든 기적을 개인의 힘이 아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과 구조대원들의 협동심과 책임감 덕분에 가능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협업과 충실한 이행이 기적을 낳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잔잔한 감동을 자아낸다. 155명 전원 생존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긴한숨을 내쉬는 설리의 모습에서 기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지극히 단순하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위기 시 함께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동은 안전시스템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 4년이 흘렀고, 정부도 바뀌었지만 사회 안전시스템과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있다.

2014년 4월 16일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많은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시스템 부재 속에서 꽃다운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학생들과 승객들에게 ‘설리’는 없었다. 국가가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은 부실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세월호 참사 4주가 더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기 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시장의 조건



박종렬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어언 반세기. 내 몸처럼 소중한 이 땅을, 광주를, 정말 행복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수기치인이라 공직자가 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기치인에 실패한 공직자는 행정 책임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려고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립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관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수장인 시장의 수기치인은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저해하는 부정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관료제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공직자의 자율적 규제를 확립시켜준다. 특히 공무원의 자율적 규제의 중요성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에 따라 시민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대적 상황에서 수장인 시장의 수기치인에 따른 공무원의 자율적 규제는 더욱 중요시된다.

수기치인을 떠올리면, 광혜군 시대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며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동대문 밖 오두막집에 집거한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실학자, ‘지봉유설’로 유명한 문장가이기도 했던 이수광 선생님이 생각난다. “참된 선비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철저히 다스려 사를 불식해야 한다. 사를 버려야 큰 공을 이룬다. 나를 버려야 전하를 끌어안을 수 있다. 이기를 버린 사람만이 이타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기치인인요 참된 학문이다.” 수기치인은 이처럼 진정한 도덕적 행실을 요하는 능동적인 행동 양식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이수광 선생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단지 말만 내세우는 이론가가 아니라 수기치인을 몸으로 행한 실천가가 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자의 실천을 간절히 요구하고 해서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장의 시행착오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장의 시행착오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광주를 위해 가장 적은 시행착오를 할 후보를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이어 차기 대선에서도 재집권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당들과 정책 대결이 가능해야 한다. 정책 대결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분화된 이념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와 한중, 한일, 한미관계 속에서도 남북 분단의 이념적 갈등을 뛰어 넘어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고 이 다양한 성향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해야만 차기 대선에서 기존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치의 변화를 주도할 세력의 바탕은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큰 규모와 큰 흐름을 위해서는 정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광주 시민의 인식 전환 조건은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경제적인 발전,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넘어서는 투명 사회, 행복 사회로의 진전과 삶의 질을 인식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행복 국가, 평화 국가로의 진보는 광주시장의 의지를 통해 가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민주 시민의 관심에 의해 발전하는데, 행복 도시의 창조 역시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광주시민의 관심에 따라 성패가 엇갈린다.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광주시민의 당면한 갈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자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수기치인과 함께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 비전에 대한 실천이 가능한 광주시장과 함께 행복 도시를 창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꿈과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와 소통 문화의 성취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도지사 경선 1위 김영록 후보 날개 달았다

팽팽하던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지사 경선전이 결선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들 간 우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그제 치러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김영록·장만채 후보가 1.2선을 각각 차지해 결선투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날 권리당원 및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전에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0.93%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장만채 전 전남도교 육감은 32.50%로 뒤를 이었으며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26.58%를 얻어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남 지사 경선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제 남은 최대의 변수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인데, 신 후보는 어제 전격적으로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순천시 김영록 예비후보 자 선거사무소를 찾은 신 예비후보는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지지의 뜻을 전했다. 신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한 팀이자 동지로서 김 예비후보와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도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행정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반행정으로 잔뼈가 굵어진 김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제 1차 경선에서 40% 이상을 얻은 김영록 후보가 30% 가까운 신 후보의 지지까지 흡수하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과반을 훌쩍 넘어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매우 유력해졌다는 것이 일반 정가의 분석이다.

반면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연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남 지사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야

지난 휴일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광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역대 두 번째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광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그제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지름 10㎍ 이하) 수치가 서울 등 수도권(129㎍/㎥)·오후 2시 평균의 네 배 가까이 426㎍/㎥를 기록하면서 2016년 5월 7일 이후 709일 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목포·영암·나주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도 이날 오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취소돼 1만6000여 관중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광주 구장의 경기 취소는 프로야구 출범 이래 처음이었다.

문제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농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휴먼지 수준이었던 미세먼지가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주 지역의 경우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지형 지형에 고층 아파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바람 길이 차단된 것도 큰 요인으로 꼽는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하지만 중국발 황사와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숲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다.

無 等 鼓

‘해경공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생모다. 헌경왕후(獻敬王后)로도 불린다. 70여 년을 궁중에서 생활했으며 한 많은 인생을 녹여 ‘한중록’을 썼다.

과거 홍 씨 이미지는 ‘한중록’에 묘사된 것처럼 사도세자 죽을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견딘 동정반은 여성이었다. 또 모진 세월을 뚫고 아들을 왕위에 올린 훌륭한 어머니로도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력 지향적인 냉혹한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남편의 죽음을 그녀가 방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홍 씨의 아버지는 ‘노론’이었고 사도세자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 속에서 희생됐다는 관점이 있기에 가능한 해석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해경공 김씨’가 정치권에 회자됐다. 처음에는 ‘해경공 홍씨’를 착각한 것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칭한 말이었다.

김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온라인에게 된 것은 민주당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이 있다. 현재 이경선전에는 이 전 시장과 전해철 국회의원, 양

기대 전 광명시장이 경쟁하고 있다. 보름 전까 ‘정의’를 위하여’(08___hkkim)란 트위터 이용자의 글이 발단이 됐다. 이 이용자는 지난 2일 “자한 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떡하고?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관이 아주 xx이 됐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쓴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계정의 영문 이니셜을 들어 이전 시장의 부인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경공 김씨’로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의’를 위하여’는 4일 새벽 2시께 “오랜만에 몇 마디 했더니 나를 사모님으로 몰아 이재명 죽이기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하위 사실에 근거한 도 넘은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체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계정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실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쓸쓸했다. ‘선거판에 나서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까발린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선거가 선의의 경쟁이 될 수는 없을

까. 아답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유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